



정부, 신임 주인도네시아 대사에
윤순구 전 차관보 임명... 17개월 공백 해소

MONTHLY **KOFA**

코파의



Ruko Pinangsia Block B No.25, Tangerang, Jl. Boulevard Jend. Sudirman, RT.001/RW.009,
Panunggangan Bar., Kec. Cibodas, Kota Tangerang, Banten 15138, Indonesia
Tel. 0856 9113 2325, 0821 1122 8827 E-mail : indokofa@gmail.com

Vol. **136**
2026/01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빠르고 정확한
명함제작
0858 9060 0962
021 5010 4614~5
pt.kwanggaeto@gmail.com

KOFA 제인니한국신발협의회
KOREA FOOTWEAR ASSOCIATION

신년사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의회 회장 이종윤

존경하는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의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사업장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변동, 환율

과 물류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우리 신발 산업 역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의회는 회원사 여러분의 2026년을 도약비상(跳躍飛上)의 정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함께 성장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 협조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생산 경쟁을 넘어 품질 고도화, 기술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영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서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소재, 자동화 공정, 인재 양성은 앞으로 우리 협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의회는 회원사 간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현지 정부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회원 여러분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보 공유와 상생의 네트워크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협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사업의 번창을 기원드리며, 2026년 새해에도 가정마다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의회 회장 이종윤 배상

신년사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의회 명예회장 송창근

존경하는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의회 회원 여러분 희망과 도전이 공존하는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인도네시아 각

지에서 땀과 열정으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양국 경제 협력의 최전선에서 활약중인 KOFA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과 급격한 변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사회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양국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으며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모범적인 공동체의 연대와 나눔을 통해 한인 동포사회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널리 전하며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26년은 변화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지속성장과

디지털 전환, 친환경 사업 등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글로벌 감각은 양국이 성장하는데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KOFA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고 협력하며 개인의 성공을 넘어 공동체의 발전을 기대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병오년 새해, 달리는 말처럼 활기차고 역동적인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에게 도약과 결실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의회 명예회장 송창근 드림.

정부, 신임 주인도네시아 대사에 윤순구 전 차관보 임명... 17개월 공백 해소

1년 5개월 만에 대사직 정상화...
외시 22회 정통 관료 출신
KF-21 분담금 등 방산 현안 및
한인 경제 활성화 과제 산적



▲윤순구 신임 주인도네시아 대사

한국 외교부는 17일 신임 주인도네시아 대사에 윤순구 전 외교부 차관보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7월 이후 1년 5개월간 공석이었던 주인도네시아 대사직이 정상화되었다.

주인도네시아 대사 자리는 지난해 7월, 이상덕 전 대사가 재외동포청장으로 영전하며 공석이 발생했다. 이후 정부는 후임으로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내정하고 아그레망(주재국 임명 동의) 절차까지 마쳤으나,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직후 방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임명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은 박수덕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박 대사대리는 지난 17개월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등 양국 간 주요 현안과 한인 사회 지원 업무를 도맡

아 수행해 왔다.

이번에 임명된 윤순구 신임 대사는 외무고시 22회 출신으로 1988년 외무부에 입부한 정통 외교관이다. 그는 주미국2등서기관, 주알제리1등서기관, 주제네바1등서기관, 주시카고영사, 주미국공사 겸 총영사, 주이집트 대사, 주벨기에·유럽연합(EU) 대사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에서도 활동하며 정책적 전문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윤 신임 대사 앞에는 해결해야 할 굵직한 과제들이 놓여 있다. 우선 양국 간 최대 현안인 한국형 전투기(KF-21) 공동개발 사업을 매듭짓고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 한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도 외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인동포 관계자는 “오랜 외교 공백을 메우고 인도네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윤 전 차관보가 임명되어 다행이다”며 “방산 협력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의 권익 신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인포스트 정선)

HKI
PT. HANJIN
KONSTRUKSI INDONESIA

HJI
PT. HANJIN
INDONESIA JAYA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https://hanjin.co.id/>

Jl. Raya Serang - Jakarta KM. 80, Kel. Kaserangan, Kec. Ciruas -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https://hanjin.co.id/>

인도네시아-미국, 관세 협상 핵심 쟁점 합의...1월 말 정상 서명 전망

인도네시아와 미국이 관세 협상의 주요 쟁점에 대해 모두 합의하며, 이르면 1월 말 브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3일 전했다.

인도네시아측 수석 협상자인 아이르랑가 하르파르도 경제조정부 장관은 22일 늦게 워싱턴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제이 미슨 그리어 대표와 회담을 마친 뒤 현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모든 실질적인 사안이 해결됐다”며 “최근 협상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장관에 따르면, 미국은 인도네

시아의 핵심 광물에 대한 접근을 원했고 팜유, 차, 커피에 대한 관세 면제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양국 간 협상은 이달 초 미국 측이 인도네시아가 기존 합의를 번복했다고 주장하면서 결렬 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당시 이 문제를 “협상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조율”이며 표현과 문구 조정의 문제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아이르랑가는 이번 회담 중에도 “협상에는 항상 역동성이 있지만, 모든 중요한 쟁점들은 해결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자카르타 탄중 브리옥항 자카르타 국제컨테이너터미널(JICT) (사진=자카르타 경제신문/Aditya)

제품에 대한 균형 잡힌 시장 접근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인도네시아 제품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양국 정부는 1월 말까지 브라보워와 트럼프 간의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며, 이 자리에서 상

호 관세 협정이 공식 체결될 가능성이 크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해당 협정에 대해 “인도네시아가 다른 국가와 무역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며 인도네시아의 정책 자율성은 전혀 침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말레이시아 및 캄보디아와 체결한 관세 협정에서, 새로운 무역 협정이 미국의 주요 이익을 위협할 경우 기존 합의를 종료하고 트럼프가 4월에 발표한 관세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번 인도네시아와 미국 협정에는 이같은 제한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인도네시아에 최대 32%의 관세 부과를 경고했으나, 7월 예비 합의 후 19%로 관세율을 인하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대미 수입을 확대해 무역 격차를 줄이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조치였다.

아이르랑가는 “1월에 서명이 지연되더라도 합의안 초안에 양측이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미국이 관세를 32%로 다시 인상할 위험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상호 무역 협정(ART) 체결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은 없다는 것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신년사

적토마의 기운으로 도약하는 2026, “함께해서 든든한 한인 공동체”

위대한 한인 사회의 저력으로 여는 새로운 내일

존경하는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 여러분,

희망찬 2026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먼저 적토마의 뜨거운 태양 아래 인도네시아 방방곡곡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고 성실하게 오늘을 일구고 계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적토마(赤兎馬)의 지혜와 기운이 넘치는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깃들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풍성한 결실로 이어질 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25년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인도네시아의 급변하는 전환기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숨 가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낯선 제도와 익숙지 않은 환경 속에서 때로는 지치기도 했지만 우리 한인 사회는 결국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바꾸어 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간 여러분의 결집된 저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

이었습니

다. 지역관리 타국에서 기업을 일구며 국위를 선양하시는 기업인 여러분, 낯선 환경 속에서도 삶의 터전을 단단히 가꾸며 우리 사회의 뿌리가 되어주신 분들, 자녀들이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헌신하시는 학부모님들까지, 지난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한인 사회의 화합과 위상 제고를 위해 힘써 주신 각 단체와 기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행사장 뒤편의 굶은일과 이웃의 아픔을 보듬는 따뜻한 손길 그리고 차세대 성장에 향한 아낌없는 지원은 우리 한인 사회의 진면목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위대한 저력은 세계 속에서 빛나는 재인도네시



아 한인 사회의 든든한 기반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이란 참 든든하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자긍심은 바로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의 결실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마음을 우리 공동체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 여러분,

2026년은 한-인니 양국 관계가 더욱 성숙해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한인회는 다음의 목표를 향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보호받는 한인 사회’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핫라인을 상시 가동하고 비상 대응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창구가 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차세대가 꿈을 꾸는 미래 지향적 한인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셋째 ‘소통하고 하나 되는 열린 한인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체육·교류 활동을 통해 더 자주 만나고 더 깊이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및 유관 기관과 한 팀이 되어 교민 여러분의 권익 보호와 생활 지원 그리고 양국 간

민간 외교의 가교 역할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과 형편은 다르지만 인도네시아에서 ‘한민족’의 자긍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입니다. 배려 깊은 말 한마디와 어려운 이웃을 향한 나눔의 손길이 모여 우리 한인 사회는 더 단단해지고 위대한 역사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따뜻한 연대는 한인 사회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한인회는 연대의 중심에서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발맞추어 뛰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올리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한인회”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할 때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확신으로, 2026년 한 해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 김종현



정직하고 품질 좋은 제품으로 인정받겠습니다!

— LS-AG Cable Indonesia 공식 대리점 —



LV 케이블/Building 케이블



산업용 케이블



Overhead 케이블



Busduct



HEAD OFFICE
Ruko Dalton Extension DLNT 052-053
Jl. Scientia Boulevard, Gading Serpong,
Curug Sangereng, Kelapa Dua, Tangerang
Banten, Indonesia 15810
Tel: 0811 8126 7788 (한국인 상담)
0811 8430 561 (한국인 상담)



www.lscns.com
www.ltag.co.id

Karawang 공장

Artha Industrial Hill
Blok E Kav 20-21, Wanajaya,
Telukjambe Barat, Karawang
Jawa Barat 41361, Indonesia
Tel: 021 3973 3988

OFFICIAL DISTRIBUTOR | 공식 대리점
PT ALJUM GREEN NUSA

인니 2026 최저임금 산정 공식, 노사 모두 불만



▲2025년 5월 1일 국제노동자의 날 기념 행사(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2026년 최저임금 산정 공식에 대해 경영자와 노동조합 모두 불만을 표하고 있다. 기업들은 제안된 인상안이 너무 높아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노동계는 인상이 여전히 기본 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쁘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지난 16일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을 결합하고 특정 범위 내에서 노동의 기여도를 반영하는 ‘알파’ 계수로 조정하는 새로운 산정 공식을 담은 규정에 서명했다.

내년도 알파 계수는 0.5~0.9 사이로, 각 지방 정부는 12월 24일까지 새로운 공식을 사용해 2026년도 최저임금 인상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이 공식에 따르면 주별 최저임금은 5.3%~7.3% 사이로 인상될 전망이다. 그러나 경영자들은 이 인상이 너무 가파르고 불안정한 사업 환경과 약 1.5%~2%에 불과한 생산성 성장률과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의 노동 업무 담당 부책임자인 숄판 가툼은 18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수준의 인상이 생산성 수준에 비해 너무 높아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이 생산성 증가율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오르면, 그 차액은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

고, 이미 구매력이 약한 상황에서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영자협회 신따 캄다니 회장은 정부가 제시한 범위는 산업별 실적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기업들이 추가 비용을 감당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업계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섬유 및 의류는 전년 동기 대비 0.93% 성장에 그쳤고, 신발 산업은 전년 동기 대비 0.25% 감소했으며, 담배 가공 산업은 전년 동기 대비 0.93% 감소, 가구 산업은 전년 동기 대비 4.34% 감소, 고무 및 플라스틱 산업은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다. 자동차 산업도 10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 감소했다. 경영자협회의 제조 책임자이자 인도네시아 식음료생산자협회(Gapmmi) 회장인 아디 루끄만은 노동 집약적인 부문이 소비자 수요 약화, 높은 비용, 수입 증가로 인해 압박을 받아왔으며, 특히 2026년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수출과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임금 인상에 “매우 민감하다”고 말했다.

노동계 역시 해당 공식이 생활비 상승 압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 공식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총연맹(KSPI)은 새로운 정부의 임금 규정에 반대하면서도 해당 공식이 허용한 최고 수준의 인상률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KSPI 회장 겸 노동당 위원장 사이드 이크발은 지난 17일, 지역 지도자들에게 상한선만 채택할 것을 촉구하며, 그 수준 이하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이 치솟는 생활비 상승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드는 자신이 입수한 자료에 따라 서부 자바가 최저 계수를,

자카르타는 중간 수준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KSPI는 또한 정부가 ‘적정 생활 수준’ 기준을 새로 정의하면서 임금 보호 장치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이드 위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이는 임금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Aspirasi)의 미라 수미랏 회장은 지난 17일, 새로운 임금 산정 공식이 노동자들의 기본 생활 욕구를 반영하거나 보장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국노동조합연맹(KSPN) 회장인 리스파디는 17일, 새로운 규정이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이 부

유한 지역보다 더 큰 인상을 보장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임금 격차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보다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 임금 수준에 따라 계수를 설정하고, 불평등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지역에 가장 높은 계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자마다대학교(UGM)의 노동 전문가인 따주딘 누르 에펜디는 새로운 규정이 “모호”하며, 적절한 계수를 선택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방 정부의 결정이 주관적이고 잠재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주딘은 18일, “지수가 매우 모호하고, 지역별 기준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중앙 정부가 임금 문제를 주지사들에게 떠넘기면서 혼란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력부 장관 아시아를리는 이번 규정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동등하게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 옴니버스 고용창출법을 통해 연간 임금 인상 체계를 안전화하려 했으나, 2024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안의 21개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2년 안에 새로운 고용법을 제정하라고 명령하면서 제도적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모두 판결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새로운 고용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인니 차량세 납부, 이제 온라인으로... STNK 대신 R코드로



▲SIGNAL 계정 등록 안내 이미지 (삼샷 디지털 홈페이지 samsatdigital.id)

인도네시아가 차량 소유주들의 편의를 위해 연간 자동차세 납부를 국가 디지털 차량 등록 애플리케이션(SIGNAL)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납세자는 더 이상 차량등록증(STNK) 갱신을 위해 해당 업무담당사무소 삼샷(Samsat 원스톱 통합행정 시스템)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STNK 역할을 하는 QR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QR코드는 자동차세 납부 후

STNK 유효성을 증명하는 홀로그램 스티커를 대체한다. 도로 검문 시 경찰은 QR 코드를 스캔하는 것만으로 차량등록증(STNK) 유효성 및 자동차세 납부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삼샷 디지털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QR 코드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유효성 증명

SIGNAL 앱에서 세금 납부 후 생성된 QR코드는 차량등록증(STNK)의 법적인 증명 자료로 사용된다.

검문 시 제시

도로에서 차량 검문을 받을 때, 경찰관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식 데이터베이스에 연동됨

SIGNAL 앱의 QR코드는 공식 데이터베이스와 직접 연동되어 STNK 유효성 확인 및 차량세 납부 완료 정보를 표시한다.

QR코드에 포함된 정보 내역

QR 코드에는 ▲차량 등록 번호(번호판 번호) ▲차량 소유자 이름 ▲자동차세 납부 만료일 ▲STNK 정보 ▲STNK 유효기간 ▲STNK 유효성 확인 정보 등과 같은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인터넷 신호가 좋지 않아 검사가 지연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SIGNAL 앱 사용자는 QR코드를 직접 인쇄해 5년짜리 STNK와 함께 소지하는 것을 추천한다.

[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2026년 “에이스 에너지”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사업에 본격 투자합니다.

We are Korea's No. 1 Solar Power Development & EPC, O&M Company in Indonesia.

PT. ACE ENERGY SERVICE는 인도네시아 No. 1 Developmet & EPC, O&M 태양광 전문회사입니다.

2026년부터 ACE는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더 큰 도약을 준비합니다.

“ACE는 2026년, 신재생에너지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전문 기업의 역할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선도 투자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합니다.”

ACE의 핵심 투자사업 영역

ACE는 다음과 같은 미래 지향적 사업 분야에 집중합니다.

- 산업형 태양광 솔루션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 Non-CAPEX 솔루션 제안)
- OFF_GRID/IPP/PPP사업 투자/개발
- WTE, HYDROPOWER, 전기차 충전소
- BESS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 시스템)와 연계된 스마트 에너지 관리

초기 자본 지출 부담, ACE가 없애드립니다!

ACE는 고객의 태양광 설치 사업에 대한 초기 자본 지출(CAPEX)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혁신적인 비(非)CAPEX 금융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투자 부담 없이 실제 RE100과 NET ZERO에 도전하세요.



• ACE는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지역에서 수많은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 즉각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
- 종합적인 관리 서비스를 통한 장기적인 최적 효과를 보장
- ESG,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목표 달성

성공적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 PT ACE ENERGY SERVICE에 지금 바로 연락주십시오

연락처 : Mr. Steve Youn : 0812 9730 5553 / steveyoun.indo@gmail.com

Mr. Song Kwang Ho : 0812 8168 3844 / dragonhoya@gmail.com

미래를 여는 에너지, ACE와 함께 만드세요!

PT. ACE ENERGY SERVICE
인도네시아 No. 1 Financing - EPC - O&M 태양광 전문회사

2026년 지역별 최저임금

PROVINSI	KOTA / KABUPATEN	2025	2026
DKI JAKARTA	KOTA JAKARTA	Rp 5,396,761	Rp 5,729,876
BANTEN	Kabupaten Pandeglang	Rp 3,206,640	Rp 3,360,078
	Kabupaten Lebak	Rp 3,172,384	Rp 3,330,010
	Kabupaten Serang	Rp 4,857,353	Rp 5,178,521
	Kabupaten Tangerang	Rp 4,901,117	Rp 5,210,377
	Kota Tangerang	Rp 5,069,708	Rp 5,399,405
	Kota Tangerang Selatan	Rp 4,974,392	Rp 5,247,870
	Kota Cilegon	Rp 5,128,084	Rp 5,469,922
	Kota Serang	Rp 4,418,261	Rp 4,665,927
WEST JAVA	Kota Bekasi	Rp 5,690,752	Rp 5,992,931
	Kabupaten Karawang	Rp 5,599,593	Rp 5,886,852
	Kabupaten Bekasi	Rp 5,558,515	Rp 5,938,885
	Kabupaten Purwakarta	Rp 4,792,252	Rp 5,052,856
	Kabupaten Subang	Rp 3,508,626	Rp 3,737,482
	Kota Depok	Rp 5,195,721	Rp 5,522,662
	Kota Bogor	Rp 5,126,897	Rp 5,437,203
	Kabupaten Bogor	Rp 4,877,211	Rp 5,161,769
	Kabupaten Sukabumi	Rp 3,604,482	Rp 3,893,201
	Kabupaten Cianjur	Rp 3,104,583	Rp 3,338,359
	Kota Sukabumi	Rp 3,018,634	Rp 3,192,807
	Kota Bandung	Rp 4,482,914	Rp 4,737,678
	Kabupaten Bandung Barat	Rp 3,736,741	Rp 3,990,428
	Kabupaten Sumedang	Rp 3,732,088	Rp 3,949,855
	Kabupaten Bandung	Rp 3,757,284	Rp 3,972,202
	Kabupaten Indramayu	Rp 2,794,237	Rp 2,910,254
	Kota Cirebon	Rp 2,697,685	Rp 2,878,646
	Kabupaten Cirebon	Rp 2,681,382	Rp 2,880,797
	Kabupaten Majalengka	Rp 2,404,632	Rp 2,595,368
	Kabupaten Kuningan	Rp 2,209,519	Rp 2,369,379
	Kota Tasikmalaya	Rp 2,801,962	Rp 2,980,336
	Kabupaten Tasikmalaya	Rp 2,699,992	Rp 2,871,874
	Kabupaten Garut	Rp 2,328,555	Rp 2,472,227
	Kabupaten Ciamis	Rp 2,225,279	Rp 2,373,643
	Kabupaten Pangandaran	Rp 2,221,724	Rp 2,351,250
	Kota Banjar	Rp 2,204,754	Rp 2,361,777
CENTRAL JAVA	Kota Semarang	Rp 3,454,827	Rp 3,701,709
	Kabupaten Demak	Rp 2,940,716	Rp 3,122,805
	Kabupaten Kendal	Rp 2,783,455	Rp 2,992,994
	Kabupaten Semarang	Rp 2,750,136	Rp 2,940,088
	Kabupaten Kudus	Rp 2,680,485	Rp 2,818,585
	Kabupaten Cilacap	Rp 2,640,248	Rp 2,773,184
	Kabupaten Jepara	Rp 2,610,224	Rp 2,756,501
PROVINSI	KOTA / KABUPATEN	2025	2026
	Kota Pekalongan	Rp 2,545,138	Rp 2,700,926
	Kabupaten Batang	Rp 2,534,383	Rp 2,708,520
	Kota Salatiga	Rp 2,533,583	Rp 2,698,273
	Kabupaten Pekalongan	Rp 2,486,653	Rp 2,700,926
	Kabupaten Magelang	Rp 2,467,488	Rp 2,607,790
	Kabupaten Karanganyar	Rp 2,437,110	Rp 2,592,154
	Kota Solo	Rp 2,416,560	Rp 2,570,000
	Kabupaten Boyolali	Rp 2,396,598	Rp 2,537,949
	Kabupaten Klaten	Rp 2,389,82	Rp 2,538,691
	Kota Tegal	Rp 2,376,683	Rp 2,526,510
	Kabupaten Sukoharjo	Rp 2,359,488	Rp 2,500,000
	Kabupaten Banyumas	Rp 2,338,410	Rp 2,474,598
	Kabupaten Purbalingga	Rp 2,338,283	Rp 2,474,721
	Kabupaten Tegal	Rp 2,333,586	Rp 2,484,162
	Kabupaten Pati	Rp 2,332,350	Rp 2,485,000
	Kabupaten Wonosobo	Rp 2,299,521	Rp 2,455,038
	Kabupaten Pemalang	Rp 2,296,140	Rp 2,433,254
	Kota Magelang	Rp 2,281,230	Rp 2,429,285
	Kabupaten Purworejo	Rp 2,265,937	Rp 2,401,961
	Kabupaten Kebumen	Rp 2,259,873	Rp 2,400,000
	Kabupaten Grobogan	Rp 2,254,090	Rp 2,399,186
	Kabupaten Temanggung	Rp 2,246,850	Rp 2,397,000
	Kabupaten Brebes	Rp 2,239,801	Rp 2,400,350
	Kabupaten Blora	Rp 2,238,430	Rp 2,345,695
	Kabupaten Rembang	Rp 2,236,168	Rp 2,386,305
	Kabupaten Sragen	Rp 2,182,200	Rp 2,337,700
	Kabupaten Wonogiri	Rp 2,180,587	Rp 2,335,126
	Kabupaten Banjarnegara	Rp 2,170,475	Rp 2,327,813
EAST JAVA	Kota Surabaya	Rp 4,961,753	Rp 5,288,796
	Kabupaten Gresik	Rp 4,874,133	Rp 5,195,401
	Kabupaten Sidoarjo	Rp 4,870,511	Rp 5,191,541
	Kabupaten Pasuruan	Rp 4,866,890	Rp 5,187,681
	Kabupaten Mojokerto	Rp 4,856,026	Rp 5,176,101
	Kabupaten Malang	Rp 3,553,530	Rp 3,802,862
	Kota Malang	Rp 3,507,693	Rp 3,736,101
	Kota Batu	Rp 3,360,466	Rp 3,562,484
	Kota Pasuruan	Rp 3,358,557	Rp 3,555,301
	Kabupaten Jombang	Rp 3,137,004	Rp 3,320,770
	Kabupaten Tuban	Rp 3,050,400	Rp 3,229,092
	Kota Mojokerto	Rp 3,031,000	Rp 3,208,556
	Kabupaten Lamongan	Rp 3,012,164	Rp 3,196,328
	Kabupaten Probolinggo	Rp 2,989,407	Rp 3,164,526
PROVINSI	KOTA / KABUPATEN	2025	2026
	Kota Probolinggo	Rp 2,876,657	Rp 3,045,172
	Kabupaten Jember	Rp 2,838,642	Rp 3,012,197
	Kabupaten Banyuwangi	Rp 2,810,139	Rp 2,989,145
	Kota Kediri	Rp 2,572,361	Rp 2,742,806
	Kabupaten Bojonegoro	Rp 2,525,132	Rp 2,685,983
	Kabupaten Kediri	Rp 2,492,811	Rp 2,651,603
	Kota Blitar	Rp 2,481,450	Rp 2,639,518
	Kabupaten Tulungagung	Rp 2,470,800	Rp 2,628,190
	Kabupaten Lumajang	Rp 2,429,764	Rp 2,578,320
	Kota Madiun	Rp 2,422,105	Rp 2,588,794
	Kabupaten Blitar	Rp 2,413,974	Rp 2,567,744
	Kabupaten Magetan	Rp 2,406,719	Rp 2,553,866
	Kabupaten Sumenep	Rp 2,406,551	Rp 2,553,688
	Kabupaten Nganjuk	Rp 2,405,255	Rp 2,564,627
	Kabupaten Ponorogo	Rp 2,402,959	Rp 2,549,876
	Kabupaten Madiun	Rp 2,400,321	Rp 2,553,221
	Kabupaten Ngawi	Rp 2,397,928	Rp 2,556,815
	Kabupaten Bangkalan	Rp 2,397,550	Rp 2,550,274
	Kabupaten Trenggalek	Rp 2,378,784	Rp 2,530,313
	Kabupaten Pamekasan	Rp 2,376,614	Rp 2,528,004
	Kabupaten Pacitan	Rp 2,364,287	Rp 2,514,892
	Kabupaten Bondowoso	Rp 2,347,359	Rp 2,496,886
	Kabupaten Sampang	Rp 2,335,661	Rp 2,484,443
	Kabupaten Situbondo	Rp 2,335,209	Rp 2,483,962
DI YOGYAKARTA	Yogyakarta	Rp 2,417,495	Rp 2,827,593
BALI	Badung	Rp 3,534,338	Rp 3,791,002
	Denpasar	Rp 3,298,116	Rp 3,499,878
	Gianyar	Rp 3,119,080	Rp 3,316,798
	Tabanan	Rp 3,102,520	Rp 3,287,678
	Klungkung	Rp 2,996,561	Rp 3,207,459
	Karangasem	Rp 2,996,561	Rp 3,207,459
	Bangli	Rp 2,996,561	Rp 3,207,459
	Jembrana	Rp 2,996,561	Rp 3,207,459
	Buleleng	Rp 2,996,561	Rp 3,207,459
Kalimantan Timur	Kota Samarinda	Rp 3,724,437	Rp 3,983,882
	Kota Balikpapan	Rp 3,701,450	Rp 3,856,694
Kalimantan Selatan	Kota Banjarmasin	Rp 3,599,182	Rp 3,855,894
Kalimantan Tengah	Palangkaraya	Rp 3,525,154	Rp 3,686,138
Kalimantan Barat	Pontianak	Rp 3,024,820	Rp 3,205,220
Kalimantan Utara	Kota Tarakan	Rp 4,460,405	Rp 4,740,000
	Kabupaten Nunukan	Rp 3,652,907	Rp 3,870,000



엘리베이터(화물용) 선택은 오케이가 최선입니다.

오케이엘리베이터

세계 어디든 함께합니다.

글로벌 엘리베이터 기업들과 쌓은
신뢰와 기술



화물용엘리베이터
FREIGHT ELEVATOR



승객용엘리베이터
PASSENGER ELEVATOR



식당용엘리베이터
DUMB WAITER



운반하역기계
DOCK LEVELER



오케이 엘리베이터(주)

OK VINA ELEVATOR CO.,LTD.
OK ELEVATOR CO.,LTD.
PT. OKE ELEVATOR INDONESIA

INDONESIA | LEE YOON HWAN
T. +62 21-8991-9999 F. +62 21-3873-5031
M. +62 852-1778-9098
E. okelevatorind@gmail.com

KOREA | 이 윤 환
M. +82 10-5313-8820 E. okelevator@naver.com

PT. OKE ELEVATOR INDONESIA
Ruko plaza menteng blok c no16 lippo cikarang bekasi 17550

모든걸 저희 OK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삼성물산

 OTIS

 ThyssenKrupp Beteiligungs Elevator

 MITSUBISHI ELECTRIC

 Schindler

인도네시아, 올해 세수 부진으로 재정적자 한도 3%에 가까워



▲인도네시아 재무부(사진=재무부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재무장관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는 주정부 예산에 대한 압박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2025년 재정적자가 법정 상한선인 국내총생산의 3%를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뿌르바야 장관은 지난 15일, 재무부가 예산 수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수치는 공개할 수 없으며, 2025년 예산안에 명시된 GDP의 2.78% 적자 목표를 초과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적자를 3% 이하로 통제할 것이며 법을 위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7년과 1998년에 금융 및 통화 위기 이후 2003년, 인도네시아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 적자를 GDP의 3%로 제한하는 법을 제정했다.

지난달 공개된 재무부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재정 적자는 479조 7천억 루피아로,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02%에 해당하며 법정 상한선과 정부가 설정한 연간 목표치인 2.78%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배정된 예산을 지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말에 예산 집행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10월 말 기준으로 정부 기관들은 2025년으로 설정된 할당량의 거의 4분의 3을 소진했으며, 이는 2025년

예산안에서 책정된 금액이 연중 하향 조정된 이후의 수치다.

뿌르바야는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지출을 가속화하려는 의도를 여러 차례 강조해 왔으며, 이에 따라 지출은 9월 63%였던 집행률은 10월에 73.5%로 급증했다.

문제는 지출보다 수입 측면이다. 뿌르바야는 올해 세수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수입원인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함에 따라 올해 첫 10개월 동안 국가 총 수입은 2,110조 루피아에 그쳤다. 세금 징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개인 소득세는 전년 대비

12.8% 감소했고, 부가가치세와 사치세는 전년 대비 10.3% 감소했으며, 법인 소득세는 전년 대비 9.6% 감소했다.

긍정적인 영역에 속하는 유일한 세목은 “기타” 세금으로, 전년 대비 42.3%의 상당한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항목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작고 구체적인 증가 요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뿌르바야는 세수 수치는 아직 변동 중이며 내년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고, 세수 관리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전임 재무장관이었던 스리 몰라니 인드라와티는 세수 부진의 원인을 원자재 가격의 ‘정상화’를 지목한 반면, 뿌르바야

산하 재무부는 세금 환급이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재정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국채 발행에 의존하고 있지만, 2003년 제정된 법에 따라 허용된 국가 부채 한도가 GDP의 60%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한계가 있다.

재정 적자와 부채 한도는 금융 위기에 대한 안전장치이자 투자자들에게 인도네시아가 신중한 재정 관리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위험 인식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자금 조달 비용을 줄여준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애널리스트 타이 치 항은 지난 11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불안정한 세

입 전망과 하반기 지출 증가로 인해 올해 재정적자가 GDP의 3.1%에 도달하여 법적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수입을 GDP의 12.3%, 지출을 GDP의 15.4%로 예측했다.

그러나 국가의 제도적 틀과 적자 규정 준수가 기대치를 안정시켜 줄 것이며, 공공 부채는 GDP의 약 40% 정도에서 “지속 가능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뿌르마따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수아 빠르데데는 11일, 세수 부족과 뿌르바야의 국가 지출에 대한 성장 지지 입장에 불구하고 올해 재정적자는 GDP의 2.75%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인니 경총, 2026년 경제성장률 5.4% 이하 전망

정책 지원 및 글로벌 위험 관리가 관건

인도네시아경영자총회(Apindo, 이하 경총)는 2026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을 5.0%에서 5.4% 사이로 전망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총은 지난 9일 “낙관적이지만 신중한” 관점을 담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지원과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위험을 얼마나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따라 경제 성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의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의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인 4.9%에서 5.7%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신타 캄다니 경총 회장은 2026년 1분기가 그해의 가장 강력한 경제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새해, 설날, 라마단 및 이돌피트리와 같은 명절이 무역, 물류, 숙박, 관광 및 소비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지출

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타 회장은 계절적 효과가 사라진 후 2분기와 3분기에 성장 둔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촉진 정책을 도입하지 않으면 둔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또한 2026년에도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경고했다.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하의 잠재적인 정책 변화, 남중국해의 지속적인 긴장, 유럽연합 산림벌채 규제(EUDR) 시행 등을 꼽았다. 이러한 요인들은 인도네시아의 상품 수출 및 제조업 부문, 특히 글로벌 가치 사슬에 통합된 부문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경총은 2026년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 목표와 일치하



▲Apindo 회원들 [Apindo 웹사이트]

는 1.5%에서 3.5% 사이로 예상했다.

경총은 인도네시아 2026년 투자 목표액 2,200조 루피아를 달성하려면 분기별 투자 증가율이 13~17%가 되고, 주요 전략 프로젝트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수출 증가 전망과 중요성에 대해서, 경총은 대외 부문을 강화하고 국가 생산량 확대를 가속화하려면 수출이 전년 대비 7~16% 범위에서 증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경총은 이러한 수출 증가를 통해 인도네시아 경제가 활력을 얻고 국가 생산량

증가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인도네시아가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운스트림(하류 산업) 부문에서 국부 펀드 다난타라(Danantara)의 역할 지속, 디지털 및 녹색 전환 발전, 300만 주택 프로그램, 무상급식 시행, 협동조합 준비, 국가 견습 프로그램 확대 등을 보호하거나 가속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총은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 노동시장 정책이 중요하며, 인도네시아 경제 구조에 맞게 더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식 일자리를 확대하고 산업 수요에 더 잘 맞도록 인력의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또한 식량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맞춤형 재정 인센티브를 추진하고 농업 디지털화와 핵심 광물 및 에너지 부문에서 기술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유성 종합건설
PT. YUSUNG JAYA ABADI

**기술로 짓고
신뢰로 완성합니다.**

건설 기계 전기 배관
정수 및 폐수처리시설

유성열 대표 : 0812 8037 0303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Raya CurugPos Bitung15810
yusungjaya1@hotmail.com / 021 598 0222



인니 금융감독원, 은행권 통합 추진...소규모 은행이 합병 · 인수 대상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은 은행 산업의 안정성과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 통합(합병 · 인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 규모가 작은 은행들이 합병 · 인수(M&A)의 주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5일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을 핵심자본 규모에 따라 4개 등급(KBM)으로 분류하는데, 이 중 핵심 자본이 6조 루피아 이하인 KBM 1 등급 은행들은 자본 증자 또는 타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규모를 확대해야 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최하위 등급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개발은행(BPD)은 이번 통합 추진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의 디안 에디아나 라에 은행감독장은 이번 통합 계획을 긴급하고 전략적인 조치로 규정하며, “정보기술 발전의 역동성, 은행업의 디지털화 가속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사이버 공격 위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이 조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규모 은행들이 유기적 또는 비유기적 방식을 통해 자본과 사업 규모를 강화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이 이들 은행에 사업 실적, 자본, 자산 건전성, 거버넌스, 비즈니스 모델 및 장기 전망을 철저히 평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세기에 직면한 은행들의 실적 향상을 위해 통합을 통한 비유기적 접근 방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통합을 강제로 추진하기보다는 “설득 중심의 방식”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각 은행의 경영 판단에 부합하는 자발적인 합병 · 증자 등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한편, 규제 준수와 고객 보호를 위해 은행별로 개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은행 전문가이자 BNI은행 전 부행장인 폴 수따리요노는 금융감독원(OJK)의 은행 통합 추진이 지나치게 많은 국내 상업은행 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105개의 상업은행이 존재하며, 이 중 61개 은행이 KBM 1 그룹으로 분류되어 소규모 은행이 전체의 약 58%를 차지한다. 폴은 지난 12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자본을 증액함으로써 소규모 은행들은 사업을 확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상업은행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집중적인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본이 제한적인 은행들은 시장 깊숙이 진출하기 어렵지만, KBM 1 그룹 은행들이 KBM 2 그룹으로 등급이 올라가면 상업

은행들은 운영 유연성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폴은 이 계획이 요구되는 최소 핵심 자본을 확보하지 못한 소규모 은행들에 압박을 가해 결국 합병이나 다른 은행에 인수되는 것을 ‘강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은행개발원(LPP)의 프리오코사 시아한 수석 부원장은 이에 동의하며, 이 계획이 합병 · 인수부터 투자 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치를 통해 소규모 은행들이 규모를 키우도록 유도할 것이며, 대부분의 경우 사업 통합으로 고객은 자동으로 새 법인의 일부가 된다고 설명했다. 통합된 새 법인이 적용하는 새로운 기준에 고객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에 프리오코사는 1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객 선호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통합 후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은 일반적으로 사전 통지를 받게 되며, 기존 은행을 유지하거나 다른 은행으로 전환할

자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합병이 은행업계 참여자 수 감소로 인한 잠재적 인력 감축 및 경쟁 심화 외에도, 소규모 은행들이 충성 고객 일부를 잃을 수 있는 평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 민간은행연합회(Perbanas)는 소규모 은행의 규모 확대를 강제하는 계획에 지지를 표명했다.

이 협회 회장 헤리 구나르디는 지난 8일 온라인으로 방송된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그룹 컨퍼런스에서,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통합 계획이 실행될 바란다면, 향후 은행 산업의 효율성,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로 통합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KBM 1 그룹 은행들의 평균 자본적정성비율(CAR)이 31.5%로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며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순이자 마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은행

들은 자산수익률(ROA)이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위험대출비율(LAR)은 12.32%로 다른 모든 그룹보다 높았다.

소규모 은행들은 운영 비용 대비 운영 수익 비율(BOPO)이 83%로, 규모가 큰 KBM 4 그룹 은행들의 64%보다 훨씬 높아 운영 효율성에 부담이 되고 있다.

그는 은행들이 일정한 규모의 경제를 가져야 하며 자산 규모가 10조 루피아 미만인 경우 성장, 마진 확보, 투자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헤리는 국영은행 3곳의 사리아 자회사를 통합해 국내 최대 사리아 은행인 인도네시아 사리아 은행(BSI)을 설립한 사례를 들며, 성공적인 통합이 사업 성과를 높인 사례로 제시했다. 합병 후 통합에 참여한 각 은행의 자산 가치가 기존 100조 루피아 미만에서 200조 루피아 이상으로 상승했으며, 제3자 자금, 신용 및 이익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인니 부방위, 재판 중 한국인 피고 상대로 금품 갈취 검사 입건

인도네시아의 독립적 반부패 수사 · 기소 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KPK)가 현지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한국 국적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반쯤 주검찰청 소속 검사를 입건했다. 20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검사는 전날 자카르타와 반딧에서 진행된 KPK의 수사 과정에서 다른 8명과 함께 체포됐다.

부디 뿌라세티오 KPK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피해자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던 한국 국적 피고인이라며,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한국 국적자

가 법 집행기관 소속 인사로부터 갈취를 당한 혐의의 피해자가 됐다”고 말했다.

부디 대변인에 따르면, 해당 피고인 모 씨는 데이터 절도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으며, 입건된 검사가 한국 국적 모 씨에게 형량을 낮춰주겠다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변인은 이어 “검사는 협박하는 방식으로 더 무거운 실형 구형, 재판 과정 중 구금, 기타 위협 행위가 포함돼 있었다”며, 해당 검사 외에도 피고인의 법률대리인과 법원 통역인도 함께

체포했다고 밝혔다.

부디 대변인은 KPK가 이 사건을 이미 이틀 전 자체 조사를 시작한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검사 체포 과정에서 수사 당국은 용의자들로부터 현금 약 9억 루피아(약 5만4천 달러)를 압수했다.

부디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법 집행기관 관계자가 외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안이 특히 중대하다며, 이러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인도네시아의 국제적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PT. BIC JAYA INDONESIA

작업환경측정(K3) / 근로자 건강검진(MCU) / 사내클리닉(In House Clinic)부문
인도네시아 정부(DEPNAKER) 대행기관

인도네시아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기관,
한국 기업들의 든든한 산업보건 환경 지킴이!



노동부 장관 BIC 방문
(2022.12)



노동부 차관 BIC 방문 (2023.12)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임명
(2024.5)



수하르토 대통령 BIC 주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관 지정
(1993~2007)

www.bicjayaindonesia.com

JAKARTA : Wisma Staco 6F, Jl. Raya Casablanca Kav. 18 +62 21 3049 0114 bicjaya.id@gmail.com
KOREA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57 부산 인도네시아센터(BIC) +82 51 365 0041 www.bic-korea.com



UTAMAKAN KESELAMATAN
DAN KESEHATAN KERJA

BIC은

- 작업환경측정(K3)/산업보건 환경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최초 한국계 인도네시아 정부(노동부) 대행기관
-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근로자 10명 이상 고용업체 연 1회 작업장 환경측정/근로자 건강검진 법적 의무사항
- 한국에서 노동부 지정 산업보건기관 운영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기술, 노하우 축적
-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 건강검진, 사내 클리닉 (In House Clinic) 운영을 패키지로 일괄 수행
- 40여년간 한국에서 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 관광부, 노동부, 할랄청, 대외부 역할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각별한 협력관계 유지, 우리 기업들의 대 인도네시아 정부 애로사항 해결지원



지속 가능한 섬유의 미래 : Textiles Recycling & Fiber-to-Fiber, 그리고 봉제기업의 기회

글로벌 패션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매년 버려지는 섬유 폐기물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환경과 자원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재활용을 넘어, 폐섬유를 다시 실(fiber)이나 원단으로 되돌리는 Fiber-to-Fiber 재활용, 즉 섬유 순환(Circular textiles)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매년 750만톤의 섬유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해 수거되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섬유폐기물은 연간 9,200만톤이 넘는다고 하며, 새옷으로 다시 Recycling 되는 것은 1% 미만입니다. (Source : McKinsey & Company market study July 2022)

유럽과 주요 선진 시장에서는 이미 관련 제도와 기술이 빠르게 정비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ANDRITZ는 기계적·화학적 재활용 설비를 통해 폐(공정 후 또는 소비 후) 섬유를 새 원사나 부직포(Non-woven), 심지어 원단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Total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재활용이 중요한가?

유럽연합(EU)은 섬유 폐기물의 별도 수거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활용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습니다.

기존의 폐섬유 처리 방식은 대부분 소각 또는 매립에 의존했고, 재활용된 제품은 청소용 걸레, 단열재, 자동차 내장재 등 낮은 부가가치 제품이 많았습니

다.

그러나 Fiber-to-Fiber 기술은 섬유 고유의 품질(섬유 강도, 길이, 촉감)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원사나원단으로 되돌려, 새 제품과 같은 품질을 목표로 합니

지금부터 시작해볼 수 있는 실천 항목

1. 공정 잔사 및 절단 잔여 원단 수집 체계 구축
2. 재활용 설비 또는 재활용 소재 공급사와의 협력 검토

수 위치한 만큼, 지금이 섬유 순환혁명(Circular Textile Revolution)에 동참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인도네시아, 혼외 성관계 · 동거 금지법 시행...여행객 영향은?

인도네시아가 새해부터 혼외 성관계와 미혼 동거를 금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가족의 신고가 있어야 처벌되는 만큼 외국인 여행객에 대한 실제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새해를 맞아 인도네시아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의 성관계와 미혼 상태에서의 동거가 금지된다. 이 규정은 1월 2일부터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적용되며, 현지인뿐 아니라 방문객에게도 해당된다.

다만 실제로 많은 여행객이 처벌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 도입되는 범죄는 당사자와 친족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만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호주 외교부 산하 해외안전정보 사이트 '스마트 트래블러'는 최근 인도네시아 여행 권고를 업데이트하며,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가, 미혼자의 경우 부모나 자녀가 신고하면 당국이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여행객들이 "호주 기준으로는 가혹해 보일 수 있는

현지 법과 처벌을 포함해 모든 현지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경고했다.

이번 법 개정은 남녀 간 혼외 성관계와 동거, 간통에 대한 처벌을 새로 규정했다. 이전까지는 간통만 금지돼 있었다. 이와 함께 흑마술 금지, 대통령이나 국가기관 모욕 금지, 국가 이념에 반하는 사상 유포 금지, 사전 신고 없는 시위 금지 등도 새 형법에 포함됐다.

관광업계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도네시아 관광청의 마울라나 유스란 부청장은 "코로나19 이후 회복 국면에 있는 관광 산업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관광객에게 호텔은 제2의 집과 같은 공간인데, 새 형법으로 숙박시설이 문제가 되는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인도네시아는 단기 해외 여행지로 뉴질랜드를 제치고 호주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목적지가 됐다. 2023년 인도네시아를 찾은 호주인은 약 137만 명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곧 시행될 법률에 따라 혼외 성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Source: Getty / Anadolu Agency

뉴질랜드 방문객 126만 명을 웃돌았다. 2024~2025 회계연도 최신 자료에서도 인도네시아는 전체 해외여행의 14.2%를 차지하며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형법 개정에 대한 인도네시아 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2022년 개정안 발표 당시 일부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국제 인권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또 혼인 신고 없이 결혼식을 치른 수백만 커플, 특히 농촌 지역의 원주민이나 이슬람 관습에

예: ANDRITZ 같은 글로벌 재활용 장비/솔루션 업체 또는 지역 재활용 업체

3. 재활용 원사/원단을 적용한 제품 기획 및 품질 테스트

4. 바이어 및 브랜드 대상 ESG / Circular Fashion 마케팅 "Re-cycle & Reuse" 강조

5. 폐섬유 회수 →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감축 + 비용 절감 / 수익 창출 구조 설계

맺음말

지금은 단순히 '값싼 원사/원단'을 찾는 시대가 아닙니다. 섬유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책임, 자원 순환, 탄소 배출 저감 이 모든 벡터가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봉제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다



인도네시아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다국적 제조기업들이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는 5G 네트워크 구축에서 동남아 이웃 국가들에 뒤처지면서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20일 자카르타 글로브가 보도했다.

전 세계 5G 가입자는 이미 20억 명을 넘어섰지만, 업계 추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5G 커버리지는 전체 인구의 약 5%에 그친다. 이는 스펙트럼 배분을 신속히 진행하고 산업용 활용이 가능한 독

수 있다면, 이는 더 빠르게 움직인 국가들과 직접 경쟁해야 한다는 뜻" 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과 태국은 이미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은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5G 시험과 초기 상용화를 확대했으며, 태국은 자동화·로보틱스·스마트 물류를 겨냥한 동부경제회랑(Eastern Economic Corridor) 전략의 일환으로 5G를 전면에 내세워 전자·자동차 산업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역시 한발 앞서 나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요 증가와 생태계 성숙도에 맞춰 보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에워브링은 향후 몇 년간의 규제 선택이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스펙트럼 사용료를 낮추는 동시에 명확한 커버리지와 구축 의무를 부과할 경우, 보급 속도를 높이고 역대 경쟁국과의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에릭슨 모빌리티 리포트 2025’에 따르면, 전 세계 5G

5G 도입 지연,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투자 매력 약화 우려

립형(stand-alone) 5G 네트워크 구축을 장려해 보다 광범위한 보급을 이룬 경쟁국인 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이 격차가 중요한 이유는 5G가 더 이상 소비자용 모바일 속도 향상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전 세대와 달리 5G는 공장, 항만, 병원, 물류 허브 등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보장된 성능과 초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에릭슨 아시아태평양 최고기술 책임자(CTO)인 마그누스 에워브링은 인터뷰에서 “기업용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며 “베트남이든 말레이시아든 인도네시아든 사업을 할 수 있지만, 한 나라에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경쟁 우위가 된다”고 말했다.

에릭슨 인도네시아 정부·산업 협력 총괄 부사장인 로니 누르말도 5G 준비도가 국가 간 비용 비교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용 5G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며 “같은 기업이 인프라가 이미 구축된 베트남에서 인도네시아보다 20%의 비용을 절감할

갔다. 국영 자원을 받는 디지털 나시오날(Digital Nasional Bhd)은 도매 모델을 통해 전국 단위 5G 네트워크를 구축해, 개별 통신사가 중복망을 구축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기업들이 고성능 연결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도네시아의 과제는 스펙트럼의 가용성과 비용이다. 지역 경쟁국에 비해 5G용으로 배정된 스펙트럼 블록이 상대적으로 작아 네트워크 용량과 성능에 제약이 있다. 통신사들은 높은 스펙트럼 사용료 역시 지속적인 부담 요인으로 지적하며, 초기 면허 비용보다 커버리지 확대와 네트워크 고도화에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대조적으로 인도는 대규모 스펙트럼을 한꺼번에 공급해 통신사들이 전국 단위로 5G를 신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보급 속도가 빨라지고 단말 가격이 하락하면서 기업 활용도 확대되고 있다. 에워브링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인도에서 판매된 스마트폰의 89%가 5G 지원 모델이었으며, 약 70~110달러 가격대의 저가 기종이 성장의 상당 부분을 견인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5G 커버리지를 인구의 32%로

가입자는 2025년 말까지 29억 명에 달해 전체 모바일 가입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전망이다. 2031년에는 64억 명으로 늘어나 전 세계 모바일 가입자의 약 3분의 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2031년까지 5G 가입자가 약 6억8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기본 커버리지를 넘어 차별화된 연결성과 고부가가치 기업 활용 사례로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향후 5년이 관건”이라며 “이번 10년 말까지 5G 커버리지와 활용에서 성숙 단계에 도달한 국가는 더 많은 혁신과 강한 생산성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렇지 못한 국가는 경쟁이 한층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5G 서비스는 자카르타를 포함한 수도권을 비롯해 반둥, 수라바야, 바탐, 마카사르, 수라카르타, 덴파사르, 메단 등 주요 도시 일부 지역에서 제공되고 있으나, 대체로 중심업무지구(CBD)나 특정 핫스팟에 한정돼 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재외동포청, 2026년 예산 1,127억 원 확정... 글로벌 네트워크 및 귀환 동포 지원 강화

재외동포청은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도 예산을 총 1,127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2025년 본예산(1,071억 원)보다 56억 원(5.3%) 증액된 규모이다. 이번 예산 증액은 재외동포청이 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핵심 사업에 예산 집중 편성

재외동포청은 2026년 예산을 국정 과제 이행에 중점을 두고 주요 사업을 증액 편성했다. 주요 핵심 사업은 ① 귀환 동포 지원 강화, ② 세계 한인 네트워크 재편, ③ 차세대 정체성 교육 강화, ④ 역사적 특수 동포 지원 등이다.

1. 세계 한인 네트워크 재편 및 교류 활성화

글로벌 한인 협력망을 재구성하기 위해 기존 세계한인회장대회를 보완하는 통합 행사로 ‘세계한인대회’를 신설한다. 또한, 해외 지역별 한인 사회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륙별 한인회장대회’ 사업이 신규로 3억 원 반영되었다. 이와 함께 재외공관 방문이 어려운 동포를 위한 순회영사 활동 지원 예산도 7.7억 원에서 8.2억 원으로 증액되어 맞춤형 영사 서비스 제공이 확대된다.

2. 차세대 교육 강화 및 청년 인재 육성

차세대 동포의 정체성 교육 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한글학교 지원이 강화된다. ‘한글학교 역량 강화’ 사업 예산은 2025년 186억 원에서 2026년 195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동포 청년 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 사업이 신규로 30.9억 원이 배정되었다. 이 사업은 동포 청년을 국내로 유치하여 교육, 취업, 정주까지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3. 귀환 동포 및 역사적 특수 동포 지원

약 100만 명의 귀환 동포가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 체계가 정비된다. 특히 ‘지역별 재외동포 국내 정착 지원’ 예산은 6.9억 원에서 9.6억 원으로 늘어났다. 역사적 특수 동포 지원도 강화되었다. 보건복지부 소관이던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일부 예산 78억 원이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되어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정주 90주년(2027년)을 목표로 하는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 공사비도 3.5억 원에서 25.3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4. 디지털 행정 기반 강화

안전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동포청 내에 보안관제센터가 신규로 27억 원을 들여 구축된다. 이는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확정된 예산을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여 동포 사회의 핵심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더 가까이, 더 따뜻하게, 더 신뢰받는” 동포 정책을 구현하여 국가가 동포 사회의 현안에 책임 있게 답하는 체계를 갖추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빠르고 정확한

명함제작

0858 9060 0962

021 5010 4614~5

pt.kwanggaeto@gmail.com



COSMO www.cosmofamily.com



GFRP WIREMESH



GFRP REBAR

더 가볍게, 더 강하게.
인도네시아 최초 SNI 인증 GFRP 보강근 제조사.
부식 없는 철근 대체 솔루션
Cosmo GFRP Indonesia.

Office : Menara Bidakara 1, 21st Floor, Unit 2152 & 2156 Jl. Jenderal Gatot Subroto Kav. 71-73 Kelurahan Menteng Dalam, Kecamatan Tebet Kota Jakarta Selatan, DKI Jakarta 12870
Factory : Kawasan Industri Suryacipta City of Industry, Jalan Surya Madya XIV, Kavling I-67A3, Kabupaten Karawang, Provinsi Jawa Barat 41362
Tel. : +62 811 9630 8805
Email : jaydentyp@cosmogfrp.co.id

나이키 생산기지 창신 베트남, 7000억 동 ‘통 큰’ 설 보너스 쏜다

창신 베트남, 지역 평균 두 배 설 보너스... 4만명 활짝



▲2025년 첫 기간 보너스를 받은 창신 베트남 직원들 [사진=창신 베트남 노동조합]

동나이성에 위치한 나이키 풋웨어 제조업체 창신 베트남이 현지 최대 명절인 ‘땃(Tet·설)’을 앞두고 약 7000억 동(약 392억원) 규모의 보너스를 4만2000명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통 큰 결정을 내렸다. 1인당 평균 1666만 동(약 93만원)에 달하는 이번 보너스는 지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금액으로 동나이 최대 고용주로서 창신 베트남은 높은 복지 수준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15일(현지 시각) 동나이성에 따르면 창신 베트남은 땃푸 산업단지 땃찌에우에 위치한 수출용 신발 제조 기업이다. 100% 한국 자본으로 운영되며 동나이성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업체다.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당투안뚜는 올해 설 보너스가 단체 노동협약에 따라 예년과 유사한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보너스 산정 방식은 1년 이상 근

무자에게 공식 계약상 월급 1개월분을 지급하는 구조다. 근속 연수에 따라 매년 5%씩 증가해 최대 200%까지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기본급도 조정돼 장기 근속자의 실수령액은 전년보다 늘었다. 현재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약 1100만 동이다. 장기 근속자의 경우 월 1800만 동~2000만 동 수준에 이른다. 이 같은 임금 구조에 따라 올해 설 보너스로 지급되는 총액이 약 7000억 동으로 집계됐다.

앞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주문 감소의 어려운 국면을 지나 수주 물량이 회복 국면에 접어들자, 숙련 인력의 확보와 이탈 방지를 위해 과감한 투자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주문 물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회사 측은 내년 상반기까지 해당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매달 평균 400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

하고 있고, 신규 직원의 월 소득은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고 850만동~900만동 수준으로 집계됐다. 창신 베트남은 올해에만 6000명을 새로 채용해 현재 총 직원 수는 4만2000명에 달하며 최근 5년 중 최대 규모로 뽑힌다.

이런 가운데, 동나이성에 있는 다른 기업들 역시 설 보너스 계획을 공개하고 있다. 태광비나(TKG Taekwang Vina)는 회사 근속 기간과 입사 시점에 따라 월급 1.15개월~1.5개월분의 보너스를 예고했다.

한편, 창신 베트남은 보너스 지급은 물론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한 지원 활동도 아낌없이 이어왔다.

기부식에서 김시정 사장은 “창신 베트남이 오랜 기간 베트남과 함께 성장해온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나이성에서 3개의 나이키 신발 공장을 운영하며 북부와 중부 출신 근로자 1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고통을 나누고 재난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기부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신은 1981년 창립된 나이키 풋웨어 제조 전문기업으로 지난 1995년 베트남과 중국, 2010년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설립했다. 이어 한국과 베트남-중국-인도네시아로 이어지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제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아주경제]

돌부리 걸린 러닝화株 ... 아식스만 나홀로 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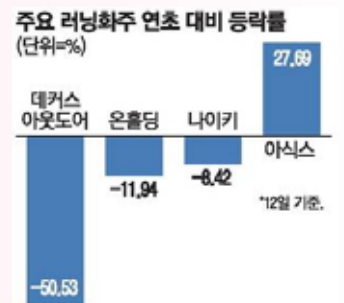
호카 제조사 데커스 올 반토막
여성고객 증가 아식스 27%↑

러닝 산업 유행에도 러닝화 판매 기업들의 주가는 올해 약세를 기록 중이다. 관세 여파와 소비 심리 부진의 영향으로 나이키, 아디다스, 데커스아웃도어 등 유명 러닝화주는 연초보다 하락했다. 반면 브랜드 이미지 쇄신에 성공한 아식스는 나 홀로 상승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본 아식스는 견조한 유럽·일본 수요에 힘입어 미국발 관세 부담을 상쇄하고 있다. 아식스 주가는 연초보다 약 27% 상승했다. 하야시 고지 아식스 최고재무책임자는 “내년 봄여름 시즌 도매업체의 사전 주문이 올해보다 20~30% 증가했다”고 말했다. 아식스 주가는 5년 전보다 7배 넘게 오르며 견조한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마라톤 선수들이 신는 러닝화를 개발하려는 노력도 올해 보스턴 마라톤 대회 우승자가 아식스 제품을 착용하면서 성과를 냈다.

아식스는 원조 아저씨 브랜드로 여겨졌던 기존 인식과 달리 최근 실용성과 심미성을 겸비해 여성 소비자들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정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아식스처럼 여성들이 계속 신어주는 브랜드는 주가가 버티거나 상승한다”고 짚었다.

다른 브랜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12월 기준 나이키와 아디다스는 연초 대비 각각 주가가 8.42%, 29.47% 떨어졌다.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가 투자한 것으로 유명한 온홀딩도



이 기간 11.94% 추락했다. 데커스아웃도어(-50.53%)는 반 토막이 났다.

러닝화 기업들은 신발을 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한 피해를 봤다. 미국이 부과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상호관세율은 각각 20%, 19%다.

러닝화 산업에서 나이키, 아디다스 등 기존 대기업과 데커스아웃도어, 온홀딩 등 신흥 업체는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는 신흥 기업에 밀려나 수년째 정체를 겪는 중이다. 반대로 신흥 기업은 매출 성장률이 높지만 유행 변화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고변동성을 보인다.

‘호카’ 브랜드로 유명한 데커스아웃도어는 올해 가장 부진하다. 2023~2024년 고속 성장을 기록한 이 기업은 유행 변화 조짐에 따라 성장 둔화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7월 유 연구원은 호카를 한물간 ‘아저씨 브랜드’라고 평가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매일경제]

KYUNGWON is writing the history of Korean air compressors
KYUNGWON Compressor is manufactured in Korea with 100% Korean Technology



KYUNGWON
COMPRESSOR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

한국직영점: (주)동부경원세기

TEL: +82-2-465-6308/3884 박용환 대표: +82-10-5345-2884
Email: dbkw2000@hanmail.net Web Site: www.dbkw2000.com

인도네시아 대리점: PT.KYUNGWON ARIM INDONESIA

공장 및 사무실: JL. Niaga Industri Blok QQ2 Nomor 11 Kawasan Industri, Jababeka Phase 2, Desa/Kelurahan Pasirsari, Kec. Cikarang Selatan, KAB. Bekasi, Provinsi Jawa Barat
TEL: +62-21-8926-1370 **전상규 법인장: +62-822-5818-8770**
Email: dbkw2000@gmail.com



KYUNGWON COMPRESSOR
GENUINE PARTS

에메 레온 도르 x 뉴발란스 991 새로운 컬러 공개 테디 산티스가 직접 공개했다.



에메 레온 도르와 협업한 뉴발란스 991의 새 컬러 퍼스트룩이 공개됐다. 17일, 에메 레온 도르를 이끄는 테디 산티스는 본인

의 공식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Made in UK 991 모델을 업로드해 스니커헤드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스니커의 어퍼는 파스텔 옐로우 메시 소재로 감싸졌으며, 그 위로 다크 브라운 오버레이가 덧대졌다. 이어 슈레이스와 텅에도 동일한 어스 톤 컬러가 통일성있게 적용됐으며, 시즌 특유의 차별하면서도 깊이 있는 무드로 완성됐다.

이번 스니커는 풋웨어 단독 발매가 아닌 에메 레온 도르 캡슐 컬렉션과 함께 발매된다. 이번 컬렉션은 북유럽 겨울 향에서 영감을 받아 전개됐으며, 그에 걸맞는 후디, 티셔츠, 재킷 등 겨울철 아이템들이 수록될 전망이다.

에메 레온 도르 x 뉴발란스 Made in UK 991 스니커는 한국 시각 12월 19일, 오전 1시에 에메 레온 도르 공식 웹사이트에서 만나볼 수 있다.

테디 산티스가 에메 레온 도르 x 뉴발란스 991 새로운 컬러를 최초로 공개했다. 금일, 테디 산티스는 본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협업 스니커의 퍼스트룩을 공개했으며, 이번 스니커는 기존에 공개된 적 없던 컬러로 선보여져 스니커헤드들의 이목을 끌었다.

해당 스니커의 어퍼는 올리브 스웨이드 소재로 감싸졌으며, 그 위로 그레이 메시 소재 및 레드 포인트 패널링이 더해져 에메 레온 도르 특유의 빈티지한 무드를 강조했다.

또한 이번 협업은 스니커 이외에도 아우터, 니트웨어 등 의류

라인업도 함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테디 산티스가 공개한 이미지에 따르면, 스니커 뒤편에 배치된 레드 컬러 하프 집업이 포착됐으며, 지퍼 부근에는 에메 레온 도르와 뉴발란스의 공동 브랜딩이 새겨졌다. 에메 레온 도르 x 뉴발란스 991 스니커에 대한 공식 출시 정보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으나, 추후 업데이트될 전망이다.

HYPEBEAST

뉴발란스 ‘클래식 러닝 740’ 발매 정보 새로운 컬러로 돌아왔다



뉴발란스(New Balance)의 ‘클래식 러닝 740’이 새로운 컬러로 돌아왔다. ‘오전 7시

40분부터 오후 7시 40분까지,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할 740’이라는 테마 아래, 이번 라인업은 딥 블랙 베이스에 메탈릭 포인트를 더한 다크 그레이와 클린한 화이트가 어우러진 실버, 두 가지로 구성됐다. 뉴발란스의 기술력이 담긴 애플즈 쿠셔닝으로 제작되어 편안한 착화감을 제공하며, 일반적인 에어홀 메쉬 대신 클로즈드 메쉬를 사용해 겨울에도 부담 없는 소재감을 갖춘 것이 특징.

HYPEBEAST

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정겨운 우리말

모모이 : 이런 면 저런 면마다 예)이 사람 모모이 뜯어보아야, 한 곳 별로 취할 것이 없네(이희승, <먹추의 말참견>)

모짜 : 한 번에 있는 대로 다 몰아서 예)능금을 먹다가 위아래 이가 모짜 빠져서 앞에 떨어지는 데.....(이인직, <혈의 누>)

문다위 : 1. 말이나 소의 어깻죽지 2. 낙타의 등에 두두룩하게 솟은 부분 예)단봉낙타는 문다위가 하나이고, 쌍봉낙타는 문다위가 둘이다.

‘문다위’는 고문헌에 ‘문다희’로 나옵니다. 몽골어 ‘mundara’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물골 : 불품없는 모양새

몸때 : 월경하는 때(생리일)



몽니 :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심술을 부리는 성질 몽니꾼, 몽니가 사납다, 몽니쟁이 참고

예)저 사람 몽니가긔어서 함께 일하기 힘들 겠...

몽따다 :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모르는 체하다.

예)태호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몽따고 되물었다.

단국대학교 한문교육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졸업 문학박사
중부대 명예교수
한국대학교수협의회 대표
한국어문학회 회장
저서 : 한국어문화문법의 50여권

하트카피 x 아디다스 아디제로 EVO SL ‘폴카 도트’ 공개 “러닝화를 다시 즐거운 대상으로 만들겠다.”

하트카피와 아디다스가 협업한 아디제로 EVO SL ‘폴카 도트’가 공개됐다. 이번 모델은 프렌즈 앤 패밀리 한정판으로 제작된 스페셜 에디션으로, “러닝화를 다시 즐거운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하트카피의 메시지를 반영한 프로젝트다.

어퍼는 반투명 신세탁 소재로 감싸졌으며, 전반에는 스칼렛 레드 컬러의 대형 폴카 도트 패턴이 적용됐다. 해당 그래픽은 어

퍼에 그치지 않고 라이트스트라이크 프로 미드솔까지 확장돼 러닝화 특유의 미니멀한 인상 대신 강렬한 디자인으로 재탄생했다. 이어 측면 힐에는 하트카피의 세리프 로고가 새겨졌으며, 안쪽 쿼터 패널에는 아디다스 시그니처 3-스트라이프가 음각 처리로 더해졌다. 퍼포먼스 디테일에 대한 구체적인 스펙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공개된 이미지에 따르면, 에바 SL 특유의 경량 러닝 구조



가 탑재된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하트카피 x 아디다스 아디제로 EVO SL는 프렌즈 앤 패밀리 한정판으로, 현재까지 일반 판매 출시 일정은 알려진 바 없으나 추후 업데이트될 전망이다.

HYPEBEAST

틈스목금형(틈스발형) 아크릴 커팅, 밴딩가공

생산성 향상
짧은제작기간
정밀성
품질 향상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뼈그라이트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틈스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틈스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PT. 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 : //www.bslaser.com

Steel Laser Cut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부산 레이저 금형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62 (덕포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1987busan@naver.com
http://www.bs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틈스목금형, 특수 칼금형

중국 매출 부진으로 나이키 주가 급락...회복 기대감 약화?

실적 악화에 주가 10% 이상 감소
중화권에서만 신발 2.5억달러 줄어
온·호카 등 신생 브랜드에도 밀려

미국의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중국 내에서 판매 부진과 경쟁업체들의 약진으로 실적이 악화된 영향이다.

1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나

이키의 주가는 분기 실적 발표 영향으로 애프터마켓에서 65달러에서 10% 이상 하락한 5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9~11월 글로벌 매출은 1% 증가한 124억달러(약 18조 3350억원)를 기록해 시장 컨

센서스 추정치인 122억달러를 웃돌았다. 다만, 2년 전 같은 기간보다 약 10억달러 낮은 수준이다.

엘리엇 힐 나이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약 2년 전 시작된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회복 과정의 중간 단계”라고 설명했다. 힐 CEO는 작년 은퇴를 번복한 뒤 복귀해 나이키의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화권에서 매출이 감소한 것이 실적 부진에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중화권에서는 신발 매출이 2억4900만달러 감소하며 전체 매출이 17% 하락한 14억달러(약 2조700억원)로 집계됐다.

매튜 프렌드 최고재무책임자



(CFO)는 “중국의 매장은 방문객이 줄고 있다”며 “재고 과잉으로 노후화된 제품을 처리하기 위한 추가 할인 등이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나이키는 매장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고 보고, 상하이와 베이징 등 매장 투자 확대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중국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전자상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시장에도 적극 적응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신생 스포츠 브랜드의 약진도 나이키 실적에 타격을 주고 있다. 러닝화를 중심으로 하는 스위스 스포츠 브랜드 온(On)과 호카 등에게도 시장 점유율을 내주고 있다.

[매일경제]

코파의 힘 광고를 제안합니다.

코파의 힘은 귀사의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요

특 징

코파의 힘은 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회의 전문지로서 탄탄한 디자인파워를 바탕으로 귀사의 홍보를 지면을 통해 대행해 드리며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함께하는 매체로 다가갈 것입니다

2, 광고 상품안내

연간(12회) 계약 혜택 :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3, 연락처 및 문의처

021-3002 9091 (mr. kang) 0821 1122 8827

khong3000@gmail.com

HANSHIN

에어 콤프레서



TANGERANG 본점

유 성 열 : 0812 8037 0303 | Mariono : 0812 8763 965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CIKARANG 영업소/AS접수

김 동 찬 : 0821 6400 0365
Ruko Simprug Plaza, Jl. Simprug Raya Blok B2
No. 10 Sertajaya, Cikarang Timur

JEPARA 영업소/AS접수

정 연 오 : 0815 1938 0006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